

News

유럽중앙은행, 팬데믹자산매입 820조원 증액...금리 동결

연합뉴스

ECB, 코로나19 확산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6천억 유로(약 819조9천60억 원)의 채권을 추가 매입하기로 결정... '팬데믹긴급매입프로그램'(PEPP)의 규모를 증액 PEPP를 내년 6월까지 늘리고, 적어도 2022년 말까지 만기 자금을 재투자...기준금리는 현행 0%로 유지, 예금금리와 한계대출금리 각각 현행 -0.50%와 0.25%

코로나로 경상수지 9년3개월래 최대 적자..."5월엔 흑자 전환"

파이낸셜뉴스

한국은행이 4일 발표한 '2020년 4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4월 경상수지는 31억2,000만달러 적자... 1년 만에 적자로 전환 "(계절적인) 배당금 지급이 대규모로 발생하면서 4월 경상수지가 적자를 기록했고 코로나19로 상품수지가 악화되면서 적자 폭이 전반적으로 확대..."

금감원 수석부원장에 김근익...최성일·김도인 부원장 임명

연합뉴스

김근익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이 금융감독원 총괄·경영 담당 부원장에...최성일 금감원 전 부원장보는 은행·중소금융 담당 부원장에 임명 김도인 금감원 전 부원장보는 자본시장·회계 담당 부원장에 각 임명...금감원 부원장은 금감원장 제청으로 금융위가 임명...

'15년 전통' 깨질까... 중간배당 딜레마 빠진 하나금융

머니투데이

금융당국의 거듭된 고배당 자제 주문, 재무건전성 확보 등과 주주들의 요구 사이에서 선뜻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모습 하나금융지주 관계자는 4일, "중간배당 중단을 검토 중이지만 은행들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배당 자제 권고와 주주 눈높이 사이에서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보험대출 따오면 추가 수수료... 삼성생명, 코로나 틈타 고금리 영업

조선비즈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지난 4월부터 보험계약대출을 유치한 설계사에 이자 수입의 10%를 수수료로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 코로나19 사태로 서민들의 대출 수요가 커진 것을 활용해 대형 보험사인 삼성생명이 손쉽게 돈 벌 수 있는 고금리 대출 장사에 앞장선 것 아니냐는 비판도...

교보생명, 동남아 보험시장 진출한다

파이낸셜뉴스

교보생명이 미얀마에 주재사무소를 설치하고 동남아 보험시장을 본격 진출... 먼저 진출한 삼성생명, 한화생명과 함께 빅 3 생명보험사의 동남아 시장에서 경쟁이... 국내 보험시장이 크게 위축되면서 국내 보험사들은 해외진출에 속도... 특히 해외시장에서 보험영업 이익이 증가하면서 국내보험사들의 해외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

증권사 '홍콩발 ELS 위기' 재연 우려에...금융당국 "외화자산 넉넉해 괜찮다"

한국경제

4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홍콩H지수를 기초지수로 발행된 ELS 중 아직 상환되지 않고 남아있는 미상환잔액은 28조8,557억원으로 집계 증권업계에서 "홍콩발(發) 2차 증권사 유동성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전망도... 금융당국은 "현재 증권사들의 외화유동성은 충분한 수준"

금융위, 네이버파이낸셜 등 4곳 지정대리인 지정

디지털타임스

금융위원회는 4일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회를 열고 네이버파이낸셜, 코나아이, 한국어음중개를 지정대리인으로 지정... 네이버파이낸셜이 미래에셋캐피탈과 손잡고 네이버페이를 통한 플랫폼 매출망 금융에 나서...미래에셋캐피탈, 네이버페이의 온라인 사업자 대상 대출 확대 기회

Compliance Notice

본 조서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서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서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